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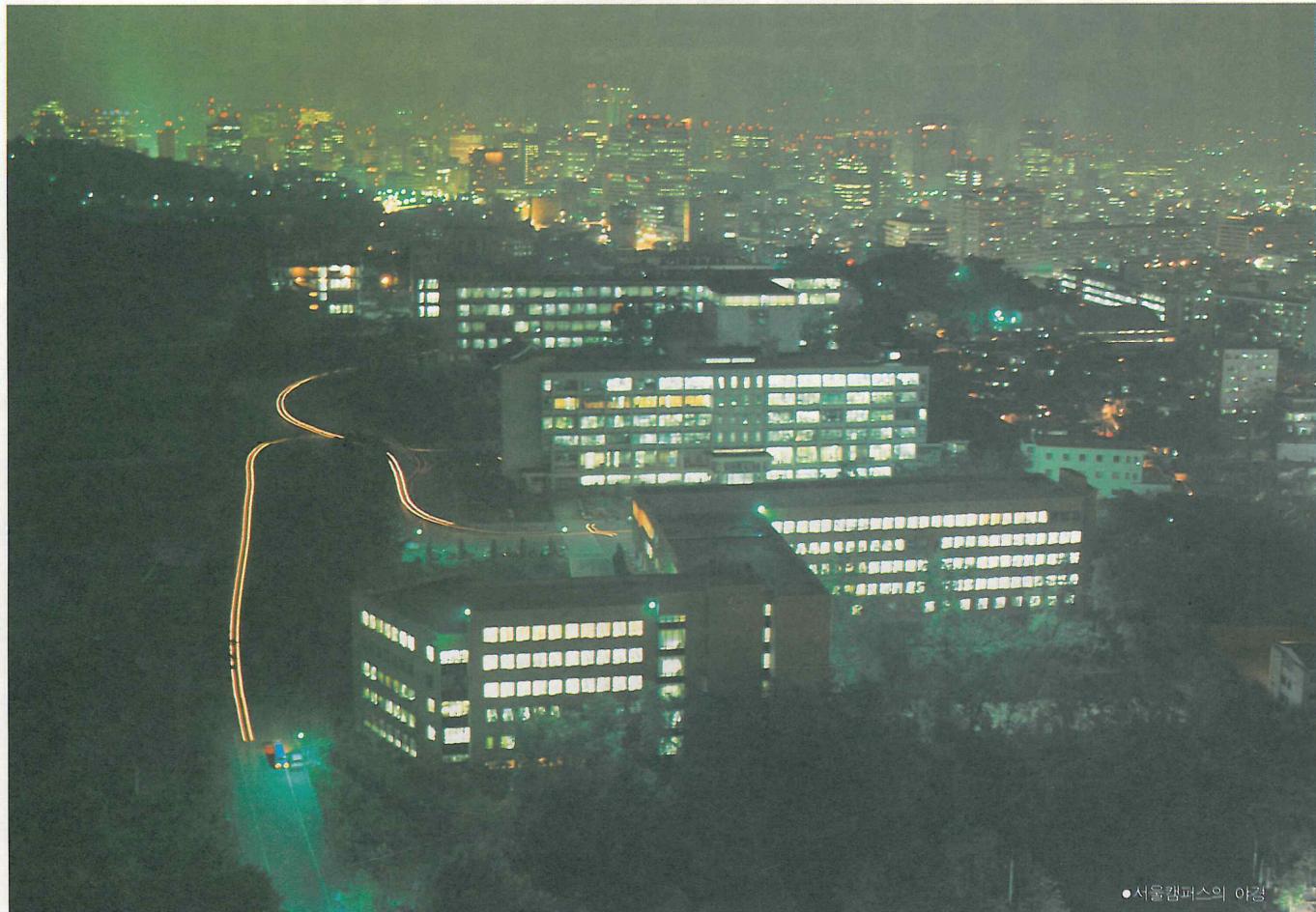
東友會報

1988年(檀紀 4321年) 6月 30日 第 133號 [1]

발행인 鄭哲在
편집인 申炫容
인쇄인 盧哲容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서울캠퍼스의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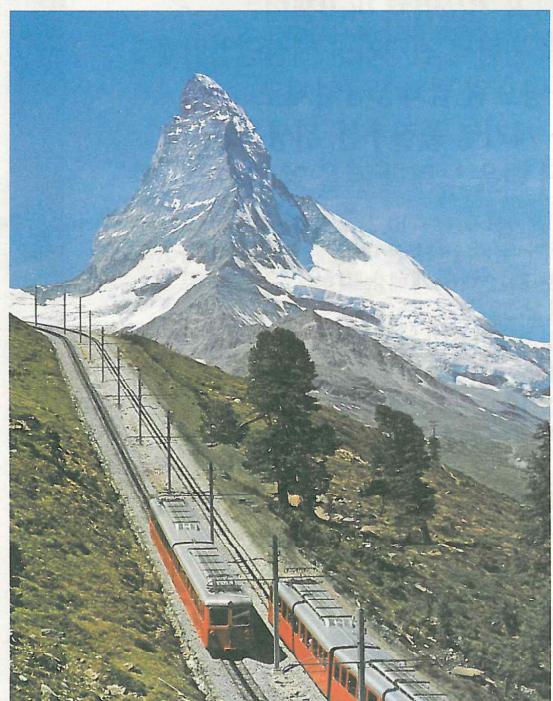
동국산악회, 알프스 등반에 나선다

모교 산악부 창립 30주년 기념... 히말라야 등정 전초로

동국산악회(회장:鄭鎮永)와 모교 산악부가 7월 16일부터 34일간 알프스등반에 나선다. 모교 산악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히말라야등반을 대비해 실시되는 이번 등반에는 조용재(72정외) 등반대장을 비롯한 3명의 동문과 김진성(전산3년)군 등 6명의 모교생으로 구성된 알프스등반대가 아이거(3,970M), 매터혼(4,477M) 등을 등정케 된다.

지난 80년 4월 28일 세계 다섯번째로 마나슬루등정에 성공한바 있는 동국산악회는 이번 알프스등반에서도 동국인의 기상과 민족의 기개를 전세계에 떨쳐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회관 건립기금 2억 둘째/3 앞서가는 동우회 - 東行会/5
동국인명록 발간사업/8 모교소식 - 학내문제 타결/9
이민휘 동문 중공방문기/10



'88서울올림픽과 버거잭햄버거의 만남!



햄버거 전문업체 버거잭이
'88서울올림픽 전경기장 매장영업업체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품질우선, 위생우선,
서어비스 우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버거잭은 대회기간 ('88. 9. 17 ~ 10. 2) 중 올림픽 캠플렉스,
올림픽파크 및 축구예선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전 경기장내 64개 매장에서 양식부문 영업업체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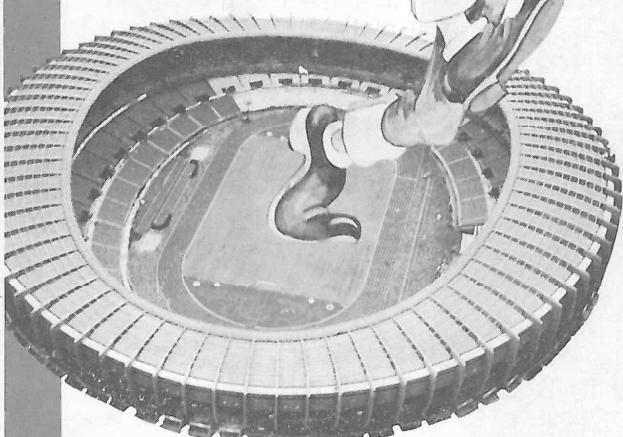
아울러 대회 운영 요원의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해 햄버거 및
양식세트도 공급합니다.

■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접수처: 직접내사 상담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7
버거잭 프리자(본사)

• 대표전화: 545-8201

Burger JACK'S.
(주)버거잭 코리아



同窓會館 기금 2억 돌파

各界 동문·동우회서 기금협찬 올해 세부계획수립...모금운동 전개예정

本會에서 추진중인 同窓會館建立基金 모금 총액이 올해로 2억원을 돌파, 총 2억 4백9만 6천 4백원에 이르렀다.

지난 86년 모교 학생회관에 있었던 본회 사무국을 校外로 이전하면서 오랜 업무사업 중의 하나인 同窓會館 건립의 뜻을 모아 본회가 건립기금 모금을 시작, 만 2년만에 2억을 적립해 됐다.

이 건립기금은 본회가 86회 계년도부터 긴 축운영을 통해 적립해온 2천 1백만원을 비롯해 본회 洪淳池지도원, 文泰植수석부회장, 朴辰熙 金聖涉 金東正 柳周馨 鄭相永 朴俊亨 부회장, 서신탁은행 東友會各계 동문과 東友會의 협찬금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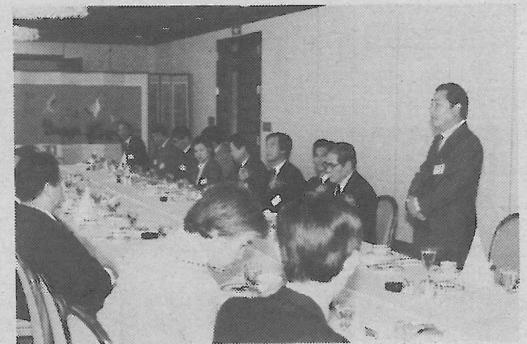
한편 본회에서는 전동국민의 奉獻이 與 同窓會館建立를 위해 모금운동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부터 회관건립 부지를 샘등 실무 조사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보내온 각계 동문과 단위 東友會의 따뜻한 東國愛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본회는 앞으로 회관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동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간 건립기금에 협찬해준 동문과 東友會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접수順>

▲文泰植(49전문) ▲金聖涉(53정치) ▲朴俊熙(63경제) ▲鄭相永(59법학) ▲吳昌均(61사학) ▲朴辰熙(52경제) ▲李和一(65상학) ▲李世茂(63국문) ▲金東正(57법학) ▲許文秀(57경제) ▲柳周馨(57농학) ▲洪淳池(52정치) ▲최철종(60정치) ▲서신탁은행동우회 ▲제일은행동우회 ▲국민은행동우회 ▲신용보증기금동우회 ▲주택은행동우회 ▲조흥은행동우회 ▲충남지부(대전) ▲美ニュージーランド 한국투자신탁동우회 ▲한일은행동우회



했다.

이날 행사에는 尹鎰均회장을 비롯, 朴瑞浩 金洛天 李允心 이기건 安秉浩 金孝浙 부회장, 崔載九고문 申國柱 모교교수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하자는 黃修經 (모교 이사장) 劉基天(13代국회의원) 李讚九(〃) 金洪萬(〃) 南雄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동문 등 5명이다.

행정대학원 조찬회

13대의원 축하겸해

행정대학원동우회(회장=尹鎰均) 한무개발 대표이사·본회부회장)는 지난달 25일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13대국회의원 당선동우회 및 동국을 빛낸 동문을 위한 축하조찬회를 개최

國文科定總 임원개편

국문과 동창회(회장=李丙疇·모교 교수)는 지난 17일 모교 다합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李相實(54국문·국민대교수·사진) 동문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한편 同會는 이날 총회에서 장학금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전개키로하고 동문간 유대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동회의 새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李丙疇(50국문) 金愚(51')
▲부회장=李鍾出(54') 세종 대교수) 安瀟蘭(54') 복지中高교장) 金英培(55') 모교교수) 李赫錦(62') 이철호한의원장)

權景燮(64')

▲총무이사=林基中(63') 모교교수)

본회 申益炫 사무국장
美洲순방차 22일 出國

美洲支部 순방차 본회 申益炫 사무국장은 22일 오후 출국했다.

총 동창회와 해외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창회관 건립과 장학사업 등의 실무협의를 위해 미주 지역 8개지부 방문에나선 申國장은 약 1개월간의 일정동안 해외동문들과 만나 본회 및 모교의 활동상황을 직접 전하며 北加州지부동창회 협판현장을 비롯, 조직강화에 힘써온 여러동문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하게 된다.

이번 미주지부방문계획은 L A(복가주·남가주) 지부, 샌프란시스코지부, 중서부(시카고) 지부, 등부(뉴욕) 지부, 워싱턴지부, 미시간(디트로이트) 지부 카나다 토론토지부 등 8개해외지부이다.

支部·支會에 공문발송

동문 현황파악 의뢰

本會는 지난 7일 각급 지부 지회에 임원 및 동문현황파악 의뢰했다.

「東國人名錄」補正출판과 東友會報의 정확한 발송을 위해 본회가 걸치고 있는 현황파악작업의 마감은 7월말이며 각급 단위 東友會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

會長團 모교 방문

학교·학생측과 모교 현안문제 논의

本會 鄭在哲회장은 모교 현안문제와 관련, 모교 李智冠총장을 비롯 이호영 부총학생회장과 지난 18일 정각원총장 임시집무실에서 회동하고 모교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에서 柳周馨 宣普圭부회장과 南基一감시등 회장단과 申興來총무, 학교측 李智冠총장 학생대표는 이호영 부총학생회장 한상열 총무부장 김영일 문과대학생회장 노병호 애간강좌학생회장 등 11명이 참석해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본회 鄭在哲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현 학내문제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우려의 뜻을 전하고, 학교행정 불간섭의 총동창회의 입장을 전제한뒤 「현안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직접 듣고, 한가족으로서 학교·동문이 해야할 부분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기坦없이 대화할것」을 제의

했다.

학생대표는 「동국 발전관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만 연속성과 계획성을의 결여로 동국 침체가 왔다」고 밝히고 「동악의 퇴보를 가져온 부정·비리는 척결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8개 항을 채택, 학교당국에 요구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同會는 7월 정기월례 회를 오는 11일에 열예정이다.

또 학생대표는 농성기간중 일간지에 보도된바 있는 기률파손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기본적 관점에 차이가 있으나 동악의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모여서 의논해줄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9면>

동국라이온스 월례회

東國라이온스클럽(회장=鄭在哲) 정기월례회가 지난달 30일 삼정호텔 해파름에서 열렸다.

한편 同會는 7월 정기월례 회를 오는 11일에 열예정이다.

經大院 체육대회·定總 개최

敎友會·蓮經會등 단위모임도 활발

축하배를 수여하고 13대국회의원에 당선한 李起彬 朴泰權동문들에게도 당선축하회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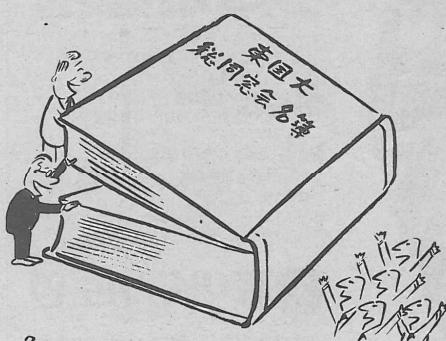
同會는 또 신임 副會長에 沈光植(88경원·협신주택(주) 대표이사)동문,理事에 金性奎(〃·해병 2사단·공병참모) 秋賢淑(〃·법무사) 金海英(〃·반야포교원포교사) 尹泰俊(〃·이태리양복집(代表) 신양인(〃·금성전기통신(주) 대표이사) 장인우(〃·태양포라스틱(代表) 동문등 27期 임원을 위촉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달 1일 모교 대운동장에서 임원·동문·교수·재학생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동문체육대회를 열고 각종 경기와 게임을 펼치며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또 同會의 단위조직인 敎友會(회장=노준래·건국대교수), 蓮經會(회장=李起彬), 東山會(회장=趙登龍·삼성심유대표), 建友會(회장=金濟一·수도주택건설대표) 등도 월례회도입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중이며, 相扶會(회장=唐奎) 不動產產전공자모임등도 조직강화에 나서 경영대학원 동문들의 친목별·기별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東友漫評

鄭雲耕



東國人을 찾아서

동아그룹 東友會총회 회장에 張甲洙동문

동아그룹동우회는 지난 2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張甲洙(64경제·대한통운민수연업부장) 동문을 선출했다.

同會는 이날 총회에서 고문에 朴鍾勳(59법학·동아건설전무이사) 동문을 추대하고, 간사장에 李時揆(69경영·총무과장) 동문을, 총무에 金箕猷(84행원·기획실)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同會는 앞으로 그룹사내 동문들간의 유대를 보다 돈독히 다져 조직강화에 힘써나갈 것을 결의했다.

「정외과 同門의 밤」열려

민주동문회 移轉

민주동문회(회장=申庚林)는 지난달 13일 중구 토계로 5가지 성별 503호로 사무실을 옮겼다. 전화: 277-8842.

明星女中 동문회 총회 회장에 朴省三동문

明星女中 재직동문회(회장=강복영·66불교)는 최근 원 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朴省三(69국문) 동문을 선출하고, 고문에 金元植(61정치·교감) 동문, 총무에 오기우(85수학) 동문들을 추대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全社員의 적극적 도전의식



—영업사원만이 외롭게
뛰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
는 총력전의 시대다. 전
사회员이 적극적인 판매의
사명감을 지니고 영업활
성화를 위해 도전할 때만
이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의 기업은 다양해
진 수요, 개성 있는 고객,
상품의 고급화, 국제시장
의 진출 등 도전의 벽이
산같이 쌓여있다.

시장을 지키느냐, 빼앗
기느냐의 경쟁에서 이겨
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시장을 개척하고 세
일즈에 도전해야 한다.

란체스터 어록은 『판매
만이 살아남고 이기는 길
이다. 판매는 피도 눈물
도 없으며 승리가 정의의
이며 이긴자만이 영광을
누릴수 있다』라고 판매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는자 즉 영업사원은
사업의 핵심이다. 세일즈맨
과 영업부만이 외롭게 뛰고
판매하는 시대는 지
났다. 현대는 기업의 총
력전의 시대다. 일선과 후
선은 「다함께」「우리 다같
이」라는 적극적인 사명
감과 영업활성화를 위해
필승의 도전을 해야 한
다.

사원과 경영자의 관계
는 마치 부모와 자식사
이 같아야 한다. 사원은
경영이념과 목표를 이해
하고 경영방침을 전고객
에게 소개하여 자사제품
의 우위성을, 기업의 소비
자 보호정책 등을 내세워
판매해야 한다.

전사원이 경쟁에서 기
어이 이기겠다는 필승의
식이 살아있을 때 경영
목표는 무너지지 달성될수
있다.

영업사원은 흠로 생각
하고 의롭고 고민하며 주
저하고 때로는 좌절하면
서도 피눈물나는 판매활

責
任
精
神
을
갖
고
목
표
달
성
에
도
전
하
는
營
業
活
性
化
제
일
주
의
기
위
야

동을 한다. 전사원은 이
러한 판매의 애로를 이해하고 영업을 위한 신
속한 지원은 물론 친절한 인사, 전화 한통화까
지도 자기일처럼 신경을 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대
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거래처 정보의 확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솔
선해야 한다. 이것이 전
사원의 판매도전 의식이다.

도전의식은 사장이 하
사원 전체가 자기고객은 자
기가 관리하고, 자기직무는
원가의식을 전제로 마
케팅 이익을 내겠다는 책
임정신이다. 그 책임 속에
각자의 목표 달성을 도전
하는 영업활성화 제일주
의 정신을 키워야 한
다.

어느 조직, 어떤 기업
이든 조직을 활성화하고
부하의 의욕을 고취하려면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층과 조직간
의 의사소통의 원활화와
부하의 참여기회를 확대
시켜야 한다. 사원 각자
의 질서 있는 자유의사가
진으로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상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이로 인
한 일체감이 조성된다.

따라서 전사원은 경영
방침을 똑바로 인식하고
총력배출, 목표관리에 의
한事業부제 실시, 임전수
금, 전략제품개발, 부가가
치제작, 서비스 개선 등을
향해 전투구할 때 경영
목표가 달성된다.

이는 곧 기업의 이윤
추구와 연결되며, 다시 종
인의 이익이 연결되는 종
대한 과제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될 때, 국가적 사
회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으며 부채와 물량은 우
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
혀진다』(麦도나우)

金炳潤

58법학·한국산업교육연
구원장·嶺東東友會회장

東國山岳會 알프스 등정



히말라야 등반대비

東國山岳會(회장=鄭鎮永)와
모교山岳部가 7월 16일부터 34
일간 알프스 등반에 나선다. 모
교산악부 30주년을 기념하고 히
말라야 등반을 대비해 실시되는
이번 등반에는 趙龍在(72정외)
동문과 김진성(전산 3) 군등 9
명으로 구성된 등반대가 아이
거(3,970m), 매터Hon(4,477m)
등을 등정하게 된다.

在獨 동문회定總
재미동문과 교류 추진키로

在獨동문회(회장=朴永國·61
생물) 세 8·15 총회가 지난 달
21일부터 23일까지 박영국, 최
천기, 한영 환동분동 등 동문 13명과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
일 Uhlenflucht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보고,
임원개선, 李智冠 모교총장의 독
일방문결과 보고 등에 이어 재미
동문과의 상호교류방안들을 논
의했는데 앞으로 재독동문주소
록 보완을 위한 미등록동문분
재파악과 정기총회증 세미나개
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기간에는 한
국기계연구소 이경열 선임연구원
을 초청해 한국기계공업과 연구
소에 대한 소개 순서를 가졌으
며, 근교 동물원에서 야유회를



결핵 회원간의 친목을 더욱
도모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개선된 임원
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박영국 ▲총무=유국
현(83·화학) ▲이사=최찬기(56
·법학) 이재일(60·화학) 한영환
(58·화학) 허길탁(정치) 이완희
(64·경제) ▲간사=김익성 (81·
경영)

同門체육대회

국사교육과·식품공학과

국사교육과·동문회(회장=姜秉
樹·83사교)와 식품공학과·동
문회(회장=盧完燮·65식공)의
동문체육대회가 모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5일 모교에서 동문 50여
명과 재학생 1백 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국사교육과
동문체육대회에서는 농구·시합,
장애물경기 등의 운동경기에 이
어 선후배 간 담화회를 갖고 우
의를 나눴다.

한편, 식품공학과 체육대회가
지난 18일 재학생, 동문 등 1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城北地域 동문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는 9월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城北동문회에서
는 동문수첩 제 2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
특별시 城北區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소재한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성북구 동선동 4가 38 5동 4번 (94-2539)
김영일(63정치·성북동문회 사무국장)

▲연락내용: 사전, 현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접수마감: 7월 20일

東國大學校 城北同門會

회장 金光鎮(69경행·풍년각·남양수산 代表)

당신의 노후설계,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비교하여 결정하십시오.”

●보험종류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적립형: 적립기간 5년이상

- 거치형: 거치기간 3년이상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

- 적립형: 월보험료 2만원이상 20만원까지

-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2백만원이상

●연금지급개시

- 적립형: 40세~60세 임의 선택

- 거치형: 40세~70세 임의 선택

노후설계연금보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높은 수익률(정기예금금리
+1.5%)을 보장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설계해 드립니다.

●가입자의 편의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연금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에 가입자가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장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732-9077
에서 자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아생명보험

代表理事 安澈 奥(52경제)



東行會

앞서가는

東行會는 81년도 행정대학원 입학동기들로 구성된 모임. 만 8년째로 접어든 동문들은 그 어느때에 뜻지않는 돈독한 友誼와 굳은 結束力으로 많은 支會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있다.

회원의 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대전·광주·창원·나주·순천등지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모임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칭립이후 격월로 모이는 정기모임이 오늘날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실시돼오고 있는 점등에서 東行會의 뛰어난 결속력을 엿볼 수 있을 정도.

이런면에서 현재 東行會를 이끌어가고있는 林成權(82회원·우성건설(株)대표이사) 회장은 동문들간에 칭송이 자자하다.

칭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동문들의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나니는 林 회장의 성과(?)를 모두가 한변씩은 견뎌봤기 때문이다.

『특히 웃은일, 어려운 일이면 더욱 밟았고 나서곤 하지요. 지방에 있는 동문이 상을 당했을 때는 별장을 타고서라도 내려가 위로해주시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同會의 총무역을 맡고있는 李起憲(82회원)은 자랑섞인 설명. 결국 東行會의 오늘은 「서로 뜯는 동문들간의 열렬한 관심」이 밀비팅되어 온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회는 격월간 정기모임 이외에도 지방동문이 많은 특성을 살려 대전·광주·순천·창원·나주등 5군데를 번갈아들 아가며 야유회를 걸한 격려방문도 갖고있다.

또한, 연 1회 하기휴가 때에는 전가족이 산이나 해변으로 함께 떠나 동문가족인 유대를 다지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林 회장이 경비를 제공하는 선심공략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곤 한다고.

兄弟와 같은 同門愛로 결속돼 "웃은일도 마다 않는 東友 한가족,"

이렇듯 뜻을 뭉쳐 활동중인 同會에서는 최근 행정대학원 동문커풀 제1호를 기록한 金箕猷·洪永和 동문부부를 탄생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東行會 회원들간에는 『입학동기들의 단남이지만 동문들끼리는 마치 兄弟와도 같은 우의를 갖고있다』는 말들을 할 정도.

현재 동회는 20명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지만 회원수를 늘리지 않고, 더욱 결속을 다져 「서로돕고 함께하는」 동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 이와 함께 이제 까지 각종基金 협찬이라든가 행사때 기념품 증정 등으로 국한되어온 동회의 활동영역을 회원들의 복지기금 및 사회사업, 동국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한다.

또한 매년 「총년의 밤」 행사에는 부부동반으로 모여 가족들끼리도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同會는, 모든 회원들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구애받지 않고 서로간에 아낌없는 섬원과 관심속에서 모교에 대한 긍정과 애착심을 갖고 맘은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東行會는 앞서가는 東友會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東行會 회원명단

▲회장=林成權(우성건설(株) 대표이사)
▲부회장=李志浩(대령·국방부 군수국 장비과장)
▲총무=李起憲(태회회 관리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박달재에서 휴식하던 중의 林 회장과 李 총무 일행.



◇회원의 부대를 방해해 혐제매를 나누고 있는 東行會 회원들. 83년 이지호 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사진.

行大院 81입학동기 모임

"칭립이래 빠짐없이 모여"

과장

▲간사=金箕猷(동아건설(株) 기획실 과장)

▲회원=吳秉澤(진흥기업(주) 고척단지 사업본부장)朴鍾一(나주시 종암고속 사업본부장)尹冰權(정진중학교 교사) 金千浩(한국화약그룹(주)산단 비상계획부장) 洪永和(경위·치안본부 정보과 기록실) 林皓伊(국방과학연구소 기획관리실 연구위원) 李俊植(순천법원 보건세장) 梁吉洙(공군대학 교수부)黃董奎(육군 8사단 정훈참모) 元永範(한국스위브제약(주)과장)

새로 파악된 東友會 현황

「보다많은 동문파악·정확한 신상등재」를 목표로 『東國人名錄』 발간작업을 추진중인 본회에서는 인명록작업의 기초가 되는 각급 단위 東友會의 전면 재파악과 미발굴자부·지회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동문조직의根幹을 이루는 각급 단위 동우회의 재파악은 사회각분야와 전국방방곡국에 서 활동중인 外國人을 찾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며 나아가 풍동경희의 조직강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하게된다.

6월 중 각급 단위 東友會의 임원현황과 명단을 보내온支部·支會는 20여개에 달하며 경북영주支會들, 지역동문회 두개와 대한보증보험 재직동문회 등 직장동문회 세개지부가 새로이 발굴되었다.

앞으로도 현재 본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소규모支會의 연락과 주위 동문들의 제보가 계속되어 8만 東國

인의 人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최근 본회에서 새로 발굴한 支會는 다음과 같다.

◇경북영주支회

▲회장=윤세홍(60전체·선영여고 서무과장) ▲총무=최현순(79경체·영주여객주무부)

◇경기양평支회

▲회장=朴贊教(62법학·용문고교감) ▲간사=尹英臣(80경행·양평경찰서정보3계장)

◇대한보증보험 재직동문회

▲회장=조기호(감사실장) ▲총무=윤창돈(82정의·영업부)

◇한영고 재직동문회

▲회장=최문화 ▲총무=황성윤

◇한국화장품 재직동문회

▲회장=박태신(68경행·총무부장) ▲간사=송재득(85산공·기획조정실)

◇수산업협동조합(동문화조직) ▲연락=최정권(지도부)

同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家族休暇는 경주도 규호텔로 오십시오

무료 서비스: 해수욕장 (50분거리 셔틀버스운행 7/23~8/20), 수영장 (고객전용 6/22~8/20), 크라식의 밤(무료입장), 어린이 역사교실(매일 시청각 교육실시), 베니스코드(고객전용), 싸이클(고객전용 대여), 기념품제공.

50% 할인: 싸우나(핀란드식 남·여), 유람선, 보트.

골프 프: 36홀 회원제, 9홀 페블리코스, 호텔에서 승용차로 5분거리

고객관광버스: 호텔현관에서 출발.

料金(2인기준·조식포함)

1박2일 ₩79,500, 2박3일 ₩159,000
3박4일 ₩238,000

경주 도규호텔
판촉부장 閔柏基(64상학)

豫約問議: 서울 753-2481 경주 42-9901 부산 463-3336
대구 22-2366 대전 525-9901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도착즉시 후로트에 제시해 주십시오
동문환영 과일을 넣어 드립니다

性 名: 自宅電話:

自宅住所:

職 場 名:

部 署 名: 職場電話:

東國大學校 大學 學科 年卒業

林成權회장

李志浩부회장

李起憲총무

金基佑간사

中共 한인사회 방문해

李敏輝 동문

李敏輝(56
성지·前 L A
동문회장)동
문은 재미동
포 윌립피후
원회장 자격
으로 7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北京, 吉林, 延
邊省 등 광내 한인사회를 보름
동안 순방했다.

방문단은 L A에 본부를 두고 미국과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재미동포 윌립피후원회 회원들로 중공거주 교포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윌립피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돌아왔다.

李동문은 재학 시 홍성한화 회장을 지냈고,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장과 L A 한인회장, 재미체육회 명예회장을 역임했으며 본회 L A 지부회장으로 활동했다.

香虛 대선사 추모행사

徐燦玨 전총장

徐燦玨 前
교도총장(香虛
불교문화
재단이사장)
은 지난 11일
프레스 센터
에서 단하례
선사 5주기 추모행사를 기렸다.

한편 徐燦玨 총장은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열리는 法會 및 社會哲學 국제학회의 이사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

(株)돌산화학 회장 金定基 동문

金定基(48법학·본회상무이사)
동문은 7일자로 한국파이프
(株) 회장으로서 (株) 돌산화학
회장으로 취임했다.

내연 플라스틱제품과 주방집
기능을 생산 제조하는 회사는
강서구 공장동 소재. 전화: 664-
3587~8.

金동문은 惠門會 회장으로 활동중이며, 국방정보부 종합
판단관(이사관)과 북한문제연구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公演윤리위원회 위원회장 俞賢穆 동문

俞賢穆(49문화·교수·本
회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노원구청 총무
국장(서기관)으로 전보됐다.

鄭東潤은 종로구 재무국장과 강
동구 재무국장을 지낸바 있다.

會이사)동문은 12일 문공부공
연율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영화감독으로서 모교 영연과
교수·예술원 회원등으로 활동
중인 鈞동문은 本會제정 제 1
회東國文化賞(예술부문)을 비롯
서울시문화상·대종상·예술원상
등을 수상한바 있는 한국영화
계의 원로. 현재 본회 이사로
서도 활동중이다.

[禪센터] 건립 추진 중 金敬福 동문

대한불교 達磨會 회장인 金
敬福(57법학·本會이사)동문은
최근 대규모「禪센터」건립을 주
진중에 있다.

전국 불자들의 뜻을 모아화
제사 앞 수유 5동에 건립될 통
센터는 대지 500평에 건물 450
평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으
로 되어 있으며, 대종선방·禪연
구실·선불교도서열람실·교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편
이건물이 완공되면서 「선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침선도량이 돼
대종불교시대에 기여하게 된다.

「가난한 사랑 노래」 출간 申庚林 동문

申庚林(59영문·시인)동문은
다섯 번째 시집 「가난한 사랑 노
래」와 에세이집 「진실의 일
유의 일」을 출간했다.

『農歌』『南漢江』 등의 시집
을 번역하는 申동문은 87년제
1회 동국문학상(동국문학인회제
장)을 수상하는 등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시작활동을 해
오고 있다.

霞城학술상 수상 金昌洙 동문

金昌洙(57사학·교수)동문은
최근 故 李章根 박사상을 위해
제정된 霞城학술상을 수상했다.

모교 사법대학 국사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金동문의 수
상장자는 「한국근대 민족의식
구」이다.

노원구청 총무국장 鄭喆 동문

鄭喆(57정치)동문은 최근
서울시 인사에서 노원구청 총무
국장(서기관)으로 전보됐다.
鄭동문은 종로구 재무국장과 강
동구 재무국장을 지낸바 있다.

용산구청 총무국장

金榮俊 동문

金榮俊(58경)동문은 최근
서울시 인사에서 용산구청 총무
국장(서기관)으로 전보됐다.
金동문은 마포구 총무국장을 비
롯, 성동구 재무국장을 역임
했다.

信保投資(주) 부사장에

鄭求澈 동문

鄭求澈(59·
정치·本회이
사)동문은 신
용보증 기금
포함 지점장
에서 信保創
業投資(주)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국민은행·한국감정원·신용보
증기금에서 근무해 온 郑동문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출자로
설립된 동사의 중책을 맡았다.

올림픽 성공기원 법회

朴完一 동문

本會 부회장으로 활동중인 朴
完一(61불교·불교조계종 전국
신도회장)동문은 지난달 17일
신라호텔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이 법회에서는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남
북평화통일 성업성취를 기원했다.

보증기금 湖南委員長 朴在圭 동문

朴在圭(60·
경제·本會
이사)동문은
최근 신용보
증기금 호남
지역본부 개
설준비 위원
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사 서부부장을 지낸 朴동
문은 조사 1부장, 인사부장, 업
무제신장 등을 역임했으며 호
남지역개설작업을 맡아 광주지
역본부로 부임했다. 광주시동
구금남로 3가 1~11 신용보증기
금 광주지역본부. 전화 27-31
38~40.

統一관련 학술회 개최 林德圭 동문

林德圭(60법학·「디플로머시」)
동문은 최근
서울시에서 「
한국문화학회
제 1회 학술
대회」를 개최
했다.

울시경 제 5 부부장으로 영전 다.

▲李鍾範(63법학·경무관)
동문=경무관승진과 함께 치
안본부 통신부장으로 영전했
다. 부여서장·시경·경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唐聖彬(64법학·경무관)
동문=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승
진. 본부 특수 1대장에서 부
산을 평기획단장으로 영전했
다. 울진서장·본부 경무과교
육담당관등을 지냈다.

▲宋瑞圭(55법학·총경)동
문=경기 남양주경찰서장 으
로.

▲蔣昌福(57법학·총경)동
문=경기도 경보안과장으로.

▲金鉉植(57경)동
문=치안본부 공보과장으로.

▲金佑浩(70경학·총경)동
문=충북 음성경찰서장으로.

▲李茂永(71행정·총경)동
문=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玄商鎮(77원법·총경)동
문=제주도경 경무과장으로.

會長·본회이사)동문은 지난 18
일 뉴저지호텔에서 「한반도의 통
일과 국제법」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
장인 林동문은 신아일보 논설
위원·동화통신 출판국장·서강
대 강사·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출판협동조합 이사장에

尹炯斗 동문

尹炯斗(63법학·법무사 대표)
동문은 한국출판협동조합 23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지난 2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尹동문은 90년 2월까
지 이조합을 이끌어가며, 도서
의 공동판매 및 유통구조 개선



本회의
近況
提報
有
동문들의
업체
請
소식
로
주

에서 평생여자종교학교 교감으로
부임했다.

교도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金동문은 특별검
찰부·대동성고 교사등을 지낸
바 있으며 본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세무사회 理事

鄭大鎮 동문

鄭大鎮(63법
학·본회 이
사)동문은
한국 세무사
회 운영담당
상임 이사로
선출됐다.

재무부 시행 세무사시험에 합
격, 서울시 세무사등 오랫동안
세무업무에 종사해 온 郑동문은
현재 관악세무소 앞에서 정대
진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詩集「어머니」 출간 金初蕙 동문

金初蕙(66국문·시인)동문은
최근 연작시집 「어머니」를 펴
냈다.

『사랑굿』으로 많은 독자를 확
보하고 있는 金동문은 詩歷 20
여년간 썼던 51편의 연작시를
모아 「영원한 삶의 거울」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시편들을 한데
모았다.

18회 詩協賞을 수상한 金
동문은 현재 月刊 한국문화학
편집장으로 활동중이다.

전남 麗川市長 영전

柳秀澤 동문

柳秀澤(67
경영)동문은
지난 11일자
로 내무부민
방위국 기획
과장에서 전
남 여천시장
(부이사관)으로
영전했다.

柳동문은 고창군수·완주군수
를 거쳐 정주시장과 이부 5도
사무국장, 전남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바 있는 정통 내무행정
가이다.

法寶新聞 편집국장

宣元彬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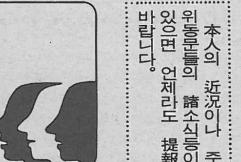
宣元彬(68국문)동문은 지난
달 16일 창간된 범교 종합
지 法寶新聞 편집국장에 취임
했다. 전화: 736-6930~1.

法寶新聞은 종파의식을 배제
하고 한국佛教의 새롭게 일어서는
불교를 표방하고 있다.

明星女中 교감 부임

金元植 동문

金元植(61정치·본회이사)동
문은 최근 동대부고 학생주임



本회의
近況
提報
有
동문들의
업체
請
소식
로
주

에서 평생여자종교학교 교감으로
부임했다.

교도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金동문은 특별검
찰부·대동성고 교사등을 지낸
바 있으며 본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自保「태웅대리점」개업

康武男 동문

康武男(68경영)동문은 한국자
동차보험(주) 대동대리점을 개설
했다. 연락처: 서울종구 충무로
2가 신민빌딩 7층(전화) 267-09
80, 269-8417

「팔활이 바람」 출간 徐廷柱 동문

원로시인 末宗徐廷柱(39종불)

동문은 최근 당시로 엮은 자
서전 「팔활이 바람」을 출간했다.

총 52장으로 구성된 이저서에서
서는 자유시형의 시험적 표현
방법으로 엮여진게 특징이다.

작년 7월부터 「일간스포츠」에
여제와 바 있는 이책은 徐
동문의 어린시절에서 고백때까
지지를 다루고 있다.

(해원출판사)

모교 崔範勳 교수 別世

모교 국문
교수 崔範
勳(61·國
문)동문이
지난 14일
급환
으로 서울국
립 의료원에
서별세했다.

향년 52세.
77년 모교대학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故 崔範勳동문은
수원대·경기대교수로 재직했
고 저서로 「韓國孝敬散記」(中世韓
國語文法論) 등을 비롯
다수의 논
문을 남겼다.

영결식은 지난 16일 모교교정
에서 문과대학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유언은 용인공원묘지에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 (75경행)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

土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정빌딩 304호

대표 549-8266, 549-8264~7, 546-2882

한국資本主義史論 출간

朱宗桓 동문



朱宗桓(74 경북·교과교수) 동문은 「한국자본주의사론」(도서출판 한울社)을 출간했다.

朱 동문은 30여년 대학 강단에서 연구해온 한국자본주의 발달사로부터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자본주의 개념논쟁의 재평가등 한국경제의 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을 실었다.

종교사회연구소 창립

鄭炳朝 동문

사학위 청구 작품전이다.

조각작품전 열어

趙丞煥 교수

조각가 趙丞煥 교수는 지난달 국제회랑에서 개인 작품전을 열었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趙 교수는 「부부」 등 가족을 주제로 독특한 선의 이미지를 살린 브론즈작품을 선보였다.

小說集「살아나는 팔」

李相文 동문



李相文(74 국문·소설가) 동문은 최근 첫창작집 『살아나는 팔』을 내놓았다.

월남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장편 「黃色人」으로 주목을 받았던 李동문은 이 창작집에서 6·25와 분단, 학생운동, 노사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83년 월간문화 신인상으로 뛰어난 활동을 펼치고 있는 李동문은 현재 한국제지공업협회 총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유화개인전 열어

曹泰根 동문

曹泰根(82교원·서양화가) 동문은 롯데미술관에서 첫번째 유화개인전을 열었다. 서라벌 예대와 교묘 대학원을 나온 曹동문은 국전, 그룹전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고 이번 개인전에서는 사실주의 기법에 바탕을 둔 풍경화들이 출품됐다.

장편「풀병시대」출간

金臣 동문

金臣(82인월·소설가) 동문은 최근 장편소설 『풀병 시대』를 출간했다.

데뷔작 『大學別曲』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한 金동문은 이 작품에서 『兵營』이라는 조작내에서 고뇌와 방황을 거듭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楊平리버사이드 개업

丁寅燮 동문

丁寅燮(85 행원) 동문은 지난 18일 가든식당과 옥외 수영장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양평소재 호텔 리버사이드를 개업,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전화: (033) 8-2037.

(주)대성건설 대표이사인 丁동문은 현재 행정대학원 동창회 상무이사로 활동중이며 강동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을 맡고 있기도.

개인작품전 열어

朴良子 동문

朴良子(72영문) 동문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관현미술관에서 개인작품전을 열었다.

이번 작품전은 섬신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친동문의 석

학위로 출간되는 책이다.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 P 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1,000만원 이상 만기 90일 이상

실태한 투자, 혁신적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표 771-06



<국정교과서(주)>

▲金教根(65경영·東友會長·본회理事) 동문=기획관리부장에서 업무부장으로 역임했다. 재직동문회장과 본회이사로 활동 중인 金동문은 同社에서 경영 기술연구소장·총무부장등을 지낸바 있다.

▲金在顯(62법학) 동문=경기 출장소장에서 본사 조달과장으로 자리로 옮겼다.

<한국김정원>

▲黃丞煥(G7행정·동우회장) 동문=목포지점장(2급)에서 서울 북부지점 차장으로.

▲河敬浩(67법학) 동문=안동 지점장(2급)에서 부산 동래지점 차장으로.

▲李泰漢(73경영) 동문=안동 지점 차장(3급)에서 수원지점 차장으로.

▲李承基(76경제) 동문=춘천 지점 부감정역(5급)에서 천안 지점 감정역(4급)으로.

▲尹英(81경문) 동문=춘천지점 부감정역(5급)에서 본점부동산감정부로.

▲李昇榮(86경영) 동문=서울중부지점 부감정역(5급)에서 중부지점 부감정역으로.

結婚

▲鄭達逢(58경제·효성 물산(주) 상임감사·本會상무이사) 동문=5월 24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장남 결혼.

▲文明麟(54정치·사단법인海港會회장·본회지도위원) 동문=6월 8일 공군회관에서 차녀 결

88국가대표에 8명 선발돼
복싱 2·레슬링 6명등 최종선발서 확정

▲金泰雨동문



▲權德龍동문



▲金光善동문

◇복싱 국가대표

▲金永南(84체교)=74kg급·
그레고로밍형

▲權德龍(86 체교)=48kg
급·"

▲金泰雨(86체교)=90kg급·
자유형

▲윤경재(체교)=74kg급·"

▲곽덕원(85 경영)=100kg
급·"

▲조규용(체교)=57kg급·
그레고로밍형

◇레슬링 국가대표

▲金永南(84체교)=74kg급·

그레고로밍형

▲權德龍(86 체교)=48kg
급·"

▲金泰雨(86체교)=90kg급·
자유형

▲윤경재(체교)=74kg급·"

▲곽덕원(85 경영)=100kg
급·"

▲조규용(체교)=57kg급·
그레고로밍형

Hon.

▲許潤秀(54정치·54동우회장)
동문=6월 11일 정동 프란치스
코회 성당에서 장녀 결혼.

▲金東正(57법학·변호사·本會
부회장) 동문=6월 15일 해군회
관에서 장남 결혼.

▲朴忠一(62법학·신인회장(주)
대표이사·本會상무이사) 동문=6월 16일 수원회관에서 3녀
결혼.

▲金東俊(55국문·모교 교수)
동문=6월 22일 소망교회에서 장녀
결혼.

회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 긴요

(단위: 만원)

◇會長團 分담금	◇年會費
▲이영장(58법학)=	▲노서봉(80경원)=
▲임영신(57경제)=	▲김현재(80행원)=
▲정재월(52정치)=50	▲전은광(85경원)=1
▲박진희(52경희)=	▲민병천(86신공)=
▲정상영(59법학)=	▲서남준(52국문)=
▲왕표순(55정치)=	▲이현우(61경원)=
▲왕국승(60경제)=	▲김정근(60경제)=
▲남시혁(58정치)=	▲김정근(60경제)=
▲김동길(61경제)=	▲손정민(82식공)=
▲김병만(62국문)=	▲권기록(80행원)=2
▲김성섭(53정치)=	▲김병만(59불교)=1
▲서옥범(79경원)=	▲이종복(51정문)=
▲구희우(51영문)=	▲우태산(51정치)=
▲김철일(78경원)=	▲임삼탁(75경원)=
▲이상진(66정치)=	▲김종숙(66법학)=
▲전준표(57농학)=	▲합원봉(64경원)=
▲박진병(58경희)=	▲배완기(63법학)=
▲구자선(81경원)=	▲김재진(71농학)=
▲김성태(79경원)=	▲이용운(80화학)=
▲김경일(83시가)=	▲정익석(50국문)=
▲김영하(58정치)=	▲임유연(86경원)=
▲김훈기(61정치)=	▲김종민(69행원)=
▲이영희(79경원)=	▲유경숙(86지교)=2
▲박종태(80경원)=	▲김기환(86법학)=1
▲김철원(75원화)=	▲김진석(64법학)=
▲김정일(84경원)=	▲이신연(70경계)=
▲김현수(84경원)=	▲정연파(84행원)=
▲장도송(84경원)=	▲이형진(81정치)=
▲이희일(63정치)=	▲이형진(81정치)=
▲이영길(68생물)=	▲박성문(66국문)=
▲홍성표(71토공)=	▲윤형우(63법학)=
▲홍사현(63사학)=	▲이정민(82경원)=
▲김해동(81원화)=	▲정월환(61국문)=
▲박수천(77행원)=	▲박성재(57국문)=
▲박수천(77행원)=	▲정재경(86연영)=
▲김기준(61경계)=5	▲이내진(63경계)=
▲홍우봉(83경원)=	▲성현기(77부류)=
▲정대진(63법학)=	▲이동훈(62경계)=2
▲이영길(68생물)=	▲이영호(84선학)=1
▲홍성표(71토공)=	◇단체비
▲홍사현(63사학)=	▲시카고동문회(회
▲인정일(72원화)=	장: 이경재)=200\$
▲김홍우(63화학)=	▲케이스케이트(회
▲박수천(77행원)=	장: 피세영)=500\$
▲이한우(85교원)=	▲명성여중(동문회)=10
▲김운경(56정치)=	▲박성삼(86경원)=10
▲이호안(64정치)=	◇광고료
▲오칠구(53정치)=	▲이동훈(62경계)=
▲신승길(63경제)=	▲이영호(84선학)=240
▲조춘원(74경영)=	
▲박찬대(62농학)=	
▲김준태(86경원)=	
▲박상현(57법학)=	
▲이상률(68생물)=	
▲조준진(58정치)=	
▲성복현(66경영)=	
▲라성규(65상학)=	

東國人名錄 발간작업 前調

12月 배포예정 同門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보다많은 동문파악·정확한 신상등재」目標

本會 88년도 역점사업인 「東國人名錄」 제6집 발간작업이 각
계 동문과 東友會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현재 6월중 회총회는 「동문 신상카드」 수는 약 350명, 단위 東友會별 「회원 및 입원현황 카드」 회수는 총 21개 지부·지회에 약 1,500여명분에 이르고 있다.

7월말까지 1차 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원고작업에 들어갈 본회 「시무한」에서는 또한 이번회 수된 「동문신상카드」를 근거로 「東友會報」를 발송함으로써 동문간의 유대감과 조직강화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많은 동문 파악, 절 확한 신상등재」는 목표로 정한 12월중 제작·배포할 예정인 「東國人名錄」은 82년도 교교역사속에서 성장해온 8만동국인들의 현황을 등재, 東國人脈의 산기록으로 남겨된다.

한편 본회에서는 원고 최종 마감일 8월31일까지 각支部·支會에 협조를 의뢰, 동문들의 협활파악에 최선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각계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비롯해, 완벽한 「東國人名錄」이 발간될 수 있도록, 本會와 연락이 끊기지 않는 주위 동문들의補正사항도 함께 통보해 주기 바란다.

本會사무국으로 「회원 및 입원 현황카드」를 보내온 단위 東友會는 다음과 같다.

한국투자신탁(주) □ 회장= 정용달(63경제) □ 총무= 손세명(72법학) □

기사= 한상천(79경영) 유병택(86경제) □ 고문= 이 광재

(45불교) 우하수(62영문) □ 회장= 이원주(63불교) □ 총무= 이승희(63국문) 김상숙(76대외) □ 기사= 오재원(77국문) □

기사= 허동선(77사회) □ 명성여중

□ 회장= 박 성삼(69국문) □ 총무= 오기우(85수학) □

(주) 베신 □ 회장= 한 세기(67행정) □ 총무= 이옥동(84영문)

東洋火災海上보험 □ 회장= 임윤기(70상학) □ 총무= 오경환(80영문)

진선여고 □ 회장= 박 태원(69국문) □ 인재근(73교과)

롯데그룹중앙연구소 □ 회장= 김 우진(68경제) □ 총무= 한주현(78식공)

한국감정원 □ 회장= 황 민환(67행정) □ 총무= 권준영(85임학)

東仁會 □ 회장= 최윤식(49전문) □ 총무= 곽재희(66) 경영

闻慶支會 □ 회장= 원 용석(58생물) □ 총무= 나정일(66상학) □ 간사= 박인수(68경영)

경영학과 □ 회장= 백 정기(64) □ 총무= 조춘환(74) □ 기사= 정재선(64정회)

수학과 □ 회장= 송상현(58) □ 총무= 이영규(75)

東進會 □ 회장= 이인식(61법학) □ 총무= 김영희(63법학)

66東政會 □ 회장= 오 사근 □ 총무= 김영희

영문과 7회 □ 회장= 김정일(64영문) □ 총무= 박영준(58생물)

산림침 □ 회장= 황의혁(84행원) □ 총무= 김찬희(83전산)

국정교과서(주) □ 회장= 김근교(65경영) □ 총무= 김명우(72토목) □ 회장= 이동석(53정치) □ 총무= 유태찬(83부여)

二川支會 □ 회장= 김은하(52정치) □ 회장= 충금회(49문화) □ 총무= 이정원(52정치)

천안지회 □ 회장= 김은하(75법원) □ 부회장= 강대복(63생물) 이윤복(71경영) □ 총무= 김준근(62국문) □ 간사= 김윤완(62국문)

東行會 □ 회장= 이성권(81전기) □ 총무= 이기현(81전기)

농수산물유통공사 □ 회장= 손명호(72식공) □ 총무= 노종우(49경영)

경영대학원 □ 회장= 조규(72) □ 총무= 김경호(72) □ 기사= 허상구(72) □ 전문= 사무국장(72) □ 훈련

慶北·大邱支部 □ 회장= 하영태(58법학) □ 수서부회장= 박달근(62정치) □ 기사= 김교찬(64법학) 허기영(70정치) □ 총무= 김상민(70정치) □ 총무= 우성수(85법학)

金大坤(74법학)= 중구 증립동 441 한국경제신문 경제해설부 312-0062

박순식(경원)=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0-8 선운회관

梁鍊錫(63상학)= 서대문구 연희동 340-16호

唐儀煥(74정외)= 동대문구 달심리 4동 이화B/D 4층 김영구의원실 보좌관

張致健(49문화)= 종로구 경운동 89-4 구합B/D 7층 고래합집(주) 상담부 733-1122

金一(63정치)= 경기도 성남시 삼대원동 333-2 일동제관

李殷甲(74경영)= 중구 남대문로 2가 130 한일은행 업무개선실 752-8376

李承甲(52정치)= 서대문구 북가좌동 101호 307-0676

裴善英(64언극)= Young Dental Laboratory Ltd. 10 Gateway BLVD. SUITE 115 DON MILLS, ONT. M 3 A 1

이현수(86전자)= 도봉구 월계동 616-(주) 대세설업 903-6541

정재현(86대역)= 강동구 일동 신동아APT 8동 403호 478-3334

김기덕(84전기)= 관악구 봉천동 890-21

桂光峴(84경영, 俊)= 종대문구 장암단 1동 391-25 신리연립 306호 246-1216

朴贊中(74정점)= 충남 금산군 산읍읍 75

曹賀根(82교원)= 강동구 암사 2동 502-20

鄭基用(62정치)= 연동포구 여의도동 5동 113호 1284-4995 553-2228

周永教(87문예)= 강남구역 삼동 834-4995 553-2228

孔東植(62경제)= 중구 증립동 35번지 대왕빌딩 832호 대한화재 해상보험

朴楠秀(81경제)= 울산구원회 2호 33-1 1호 712-2028

동문카드 새로 파악된 現住所

▲ 李慶慶(88수교)= 노원구 월계동 월계라인프 APT 1동 21호 1903-1675

▲ 유상동(77전신)= 은평과 같

현동 275-79호 389-8694

▲ 고평역(65경계)= 서대문구 북가좌 1동 연희한양 APT. 2

동 1306호 305-6680

▲ 전경주(50국문)= 영등포구 익의동 43-4 미수 APT. A동 401호 782-6105

▲ 이규나(83원원)= 성북구 동

선동 5가 70-49호

▲ 복수원(85법학)= 열등포구

신길 1동 대림연립 라동 201호

▲ 李國國(57영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치안본부 제 4 차장

313-3195

▲ 金鐘錫(58법학)= 대구시 종

구 동인 2가 78, 시경국장(053)

423-9001

▲ 이희달(경원)= 은평구 갈현

동 504-61호 389-6544

▲ 민종식(74행정)= 종로구 면

목동 102-19, 기업은행, 면목

동지점 대리 434-7044-7

▲ 柳錫錫(61국문)= 관주시 동

구 수기동 23-1 신일스엔 2

층 東大동창회 363-0028

▲ 정광균(경원)= 강동구 풍

남동 80-33 3동 5번

▲ 김영상(63법학)= 광명시 광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韓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韓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870

▲ 金水敏(82무역)= 양천구 신

명 7동 41-21 하보주택 201호

▲ 이수용(85경영)= 강릉구 문

촌동 75-1 청수연립 5동 204

호 484-2401

▲ 韩容卿(88영문)= 동작구 삼

도 4동 244-195호 843-5476

▲ 오영록(86국문)= 경북 포

항시 덕산동 234-3호 (0562)

2-2

東岳, 새로운 跳躍의 전기마련

모교 學內 문제 타결... 8개 항 合意

학생들 학사일정거부·본관점거농성 풀어
실·처장경질, 학생처장에 洪致裕 교수등 임명

지난달 26일 모교생들이 「학원자주권수호투쟁」을 선언하며 교수세미나실 점거농성을 시작한 이래 학사일정거부, 본관·전자계산소·교환실들을 점거, 학교행정이 마비되는 심각한 사태로 까지 확산된 모교의 學內문제가 농성 30일 만인 지난 24일 학교당국과 학생총회가 8개 항에 조인하고 財團측이 학교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학내문제로 모교는 한 달간이나 학사일정이 중단되고 학교행정이 마비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교수, 학생과 학교당국이 그동안 東國發展을 저해해온 모순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학원자주화와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모교는 제 2의 노력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학내문제를 통해 의결권을 가진 교수회의가 탄생하고, 학생들이 학원의 주체로 설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것과 그간 동국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인액·파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진것은 비록 학생들의 학원자주화투쟁이 과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긴 했지만 東國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재단측에서 법인소유재산(약 4천억원주정) 중 佛敎財產管理法의 개정으로 사용가능한 2천억원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학교발전에 투자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모교는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학내문제는 모교생들이 지난달 26일 학생과 총장실을 점거하여 장학금유용과 학원사찰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련교직원의 악심선언을 촉구한뒤 지난 8일 학생 1천 5백여명이 종강당에서 비상

학생총회를 가진후 재단과 이 사장실 등을 제외한 본관전체 건물을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일단락되었다.

11일 학교당국과 학생총회 1차회의를 통해 문제 교수의 퇴진과 부정비리에 관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교과과정 대체위구성에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14일 오후 2시도 서관앞에서 학생 1천여명과 보교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장과의 공개질의 응답에서 李智冠총장이 『학교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 후 퇴장하자 학생



▲ 학생들의 「학원자주권수호투쟁」으로 한 달간의 진통을 겪은 모교는 한때 학교와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태로 까지 발전했으나 東國發展에 의견을 같이해 학교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대폭수용하고 학생들은 순리적으로 양보해 원만한 타결을 보았다.

최고 議決權가진 「교수회의」 탄생 財團, 기금조성으로 실질적 지원약속 학원자주화·東國發展에 신기원

들은 학교측의 불성설한 답변과 학원사찰의 책임을 물어 학생처장집기와 명진관 책걸상을 불태우고 15일에는 「학자투쟁의 대회」를 열면서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16일 중앙일보사 앞

에서 제도언론의 왜곡·폄하보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17일 오후 2시에는 도서관앞에

서 학생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전교교환실과 전자계산소를 확대점거하는 한편 일부학생들은 혈서를 쓰기까지 했다.

한편, 학교당국은 학내문제와

관련 지난 17일자로 보직교수를

경질(교학장), 교부처장에 邢基柱(서법대학장), 학생처장에

洪致裕(이과대학장), 총무처장에

趙昌華(경영대학원장) 교수를

임명하고 학생 1천 5백여명이 종강당에서 비상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 학사업무의 단과대학별 분산 및 학장의 단대교수회의에서의 선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학원장·학장·단과 대교수대 표등 25명으로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했다.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계속된 대립 속에서도 교수, 학생과 학교당국은 조속한 문제해결과 東國發展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협상을 계속해 지난 24일 오후 7시 본관 총장실에서 총장, 이사장, 교수대표, 학생대표가 8개 항의 회의에서 조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의 농성해제와 학교의 정상화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교는 이번 학내문제를 치루면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일을 東國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痛苦로 인식하고 앞으로는 교수·학생·학교당국·재단·동문 모두가 東國發展

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길만 남았다는 것이 東國人民 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에 합의된 8개 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생·학교당국의 3 자연선택회의는 학사일정에 대한 결정권과 학교행정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갖는다.

▲교과과정 개선과 교수임용에 관련된 교과과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적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87학년도 2학기부터 장학금 내역을 공개한다.

▲89학년도부터 예산을 전면 공개한다.

▲학교·재단·학생·학부모·동문등으로 구성된 동국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문제 교수를 퇴진시키고 부정교수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원사찰의 책임을 물어 학생부처장을 1년간 후직시키고 학생과 직원을 보직발령한다.

국교소식

도서관 「데이터 뱅크」 개통

모교 종암도서관은 「해외데이터 뱅크(DIALOG)시스템」 개통식을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수서사무실에서 가졌다.

이시스템의 이용자들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친 재학생, 대학원생 등이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10시이다.

국내최대의 寺刹址발견

모교 서울캠퍼스 박물관의 밤길 조사팀(단장=文明大교수)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춘궁리 寺址(大業)에서 국내 최대 寺刹址를 발견했다. 지난 4월초에 시작된 이번 순찰고속도로 밤길조사에서 발견된 금당터는 신라 활동사당에 버금가는 고려시대 최대의 금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CPA 1次 모교 20명 합격

제 22회 공인회계사선발 1 차시험에서 모교생 및 동문 20명이 합격했다.

지난달 28일 재무부에서 발표한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영구(회계 3) ▲박병호(경영 3) ▲이영찬(〃) ▲이성렬(회계 4) ▲김영이(경영 4) ▲우종환(대원在) ▲강호식(〃) ▲김영식(85회계) ▲김창후(〃) ▲김용수(84회계) ▲주진승(〃) ▲제해선(87회계) ▲성금순(88회계) ▲김시완(87경영) ▲심장섭(88경영) ▲임성호(〃) ▲노금기(〃) ▲김봉구 ▲이덕구 ▲유준열

慶州총학생회장에 김동선

지난 1일 실시된 경주캠퍼스 제 5대 총학생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김동선(중문 3)이 창복(국문 3) 조가 당선되었다.

「전방교육」 2백여명 퇴소

지난달 30일 실시된 서울캠퍼스 「전방입소교육」에 모교생 1천 1백 2명이 응모, 이수했으며 대상자중 2백여명은 『군사교육월례』를 주장하며 자진퇴소했다.

會費... 1년에 1만원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지난해 同窓會館 건립의 밀바탕이 될사부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니다.

同門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련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유용과 東國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회費납부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남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용 납부
- ②전화주시면 방문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事務국(739-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예배달
FLOWERS BY PHONE

777-5040

전화 한 통화로
축하의 기쁨과
만족의 꽃이
됩니다.

뽀뽀의꽃방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 입구

대표 : 이금향(77가교)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世界通子通信公社

민족의 靈山 白頭 의 품에 안겨

李敏輝동문 中共 방문기

15일간의 中共여행은 走馬看山격인 여정이었으나, 긴 세월 단절돼 살아온 이국땅 동포들끼리 만나 한겨레의 배반과 고통을 뜨겁게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지난달 14일 LA를 떠나 홍콩을 거쳐 17일 北京에 들어갔다.

일행은 재미동포 올림픽후원회 국제교류 위원장인 세라·킴여사, 오렌지카운티 올림픽후원회장인 朴鎮邦씨, 올림픽후원회 자문위원 俞龍廉씨, 실행위원장인 羅愛子씨, 유의상씨와 세라·킴씨의 여비서 신더·吳씨등 모두 7명이었다.

北京공항엔 北京과학원 고문인 이춘성씨 등 한인사회와의 고위관료들이 나와 우리를 영접했다.

우리가 중공에 가기까지에는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는 吉林遼寧 黑龍江省의 경제고문인 李奉德씨의 힘이 커졌다. 이 춘성씨가 바로 그의 동생이다.

북경 훌리데이인 호텔에 든 우리는 저녁에 동포들을 만나 서울올림피아 우리민족의 大祭

典임을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올림픽 포스터와 호돌이첨자를 전했다. 전기면도기·계산기·화투등도 선물했다.

그날 한교포는 「아시안게임 때 한 잡지에서 한국경제가 일본을 압自然而 그것이란 글을 보고 박수를 보냈다」며 서울쪽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7~8년전부터 在中동포들은 자유롭게 한국방송을 청취하고

교수가 90명 있었다. 이 학교 교장은 「奉天시립의 동광·관신중학이 이학교 전신」이라며 한국에 있는 동창들에게 濟陽을 방문해 달라는 뜻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吉林에서 한인모범부부란 아라디(安祖良)와 언덕이(任德)를 방문해 올림픽홍보물과 선물을 전했다. 무척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폐와 순두부, 고사리, 버섯등 맛있는 한식을 먹여놓기 차려놓고 우리를 대접했다.

다시 밤열차를 타고 달려 23

포스터와 선물을 전달하니 고사 학생 모두가 『큰기념』이라며 『서울올림픽때 가고 싶다』『초청해 달라』고 말했다.

23일 하오 용정서 미니버스를 타고 몇시간을 달려 豆滿江 국경도시 羅門으로 가 두만강을 찾았다. 바람이 많이 불었으나 좀 더운 날씨였다.

북한땅으로 건너가는 다리까지 갔다. 다리 건너 눈앞에 푸른산을 보며 모두가 분단의 비애와 격정과 슬픔이 한데 얹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朴鎮邦씨가 다리단간을 불잡고 통곡을 했다. 그는 6·25 때 단신으로 월남한 실현민이었다. 이다리에서 2시간반이면 간다는 고향 함경도 北青을 눈앞에 두고 갈수 없는 설움에 한맺힌 눈물을 두만강에 쏟고 있는 것이다.



◇李敏輝동문이 뼈두산 정상 바로 아래 長白폭포의 비위에 올리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白頭山 등반의 감격... 88소식 전해

北京市·遼寧·吉林·黑龍省등 韓人사회 순방

한국가요를 즐겨 부르며 한인 사회의 「영도 3급이상」간부들은 한국신문까지 받아본다고 했다.

瀋陽에서는 조선족무역협회, 조선족 모범부부등 한인사회를 두루 찾았다.

한인학교인 濟陽조선족 제1 중학교를 찾았을 때도 큰 환영을 받았다. 중고등학교인 이 학교인 남녀학생 7백75명에

일상오 延邊 조선족자치주로 들어섰다. 해외무역관, 역사자료 연구가, 延邊신문사 사장등 각 계 인사들을 만나 교류를 했다.

이곳 교포들의 서울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龍井에선 인민정부 외사과주임 文學祿씨의 안내로 龍井인 민청사도 가볼수 있었다. 한인 학교인 龍井중학을 방문, 올림

일행이 두만강을 찾았을 때 중 공령의 한인 상여명이 中공·북한국경의 중공족 조소근처에서 북한족을 함께 손을 훈드는 것을 목격했다.

북한족 다리 건물에서는 한여인이 손을 훈들고 있었다. 애걸 들으니 40년만에 延吉에 사는 가족을 삼봉하고 돌아가는 이별장면이라고 했다.

연길에서 온 주민에 의하면 북한은 중공땅에 사는 이산가족 방문을 3년에 한번만 허용하여 그나만 1명씩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아침 꿈에 그리던 백두산으로 향했다.

백두산은 5월말인데도 희눈을 이고 긴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고산끝에 정상이 가까운 長白폭포까지 올랐다.

『아, 한고비만 더 오르면 天池인데…』 그러나 눈길은 깊고 험하고 날도 저물어 더 오를 수가 없었다.

일행은 그래도 중공쪽 땅이긴 하지만 만 민족의 靈山 白頭山의 품에 안긴것에 감격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불렀다.

이글은 재미동포 올림픽후원회장인 李敏輝(56·정치)동문이 쓴 中共방문기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註>

同窓會館 세울날도 멀지않은듯

『人名錄』을 만들시다

○...8만 동국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 동문의 「오늘」을 한데 묶어 동국인맥의 산記録으로 집대성 될『東國人名錄』제작 작업이 본회사무국에서 한창진행 중이다.

1906년 개교이래 동국이 배출해낸 수많은 인물들을 수록, 명실공히 또 하나의 동국사역과 함께 될『東國人名錄』제작 작업이 본회사무국에서 한창진행 중이다.

同窓會館 첫산 뜰 날을...

○...전 동국인들이 그토록 원해 마지 않던 同窓會館 건립의 꿈이 마침내 실현단계로 접어들어 화제. 이는 지난 2년간 동창회관건립에 뜻

을 모은 동문들과 직장東友會의 열렬한 성원으로 건립 기금 2억원이 모금돼 그여 전이 마련된 것. 이제 본회



동국대동창회동동작임직임

듯한 동창회관 첫삽 뜰날을 손꼽아 기다리옵니다.

「東國發展」에 한마음으로

○...한달간이나 지속돼 오던 교교사대가 지난 24일 저녁 마침내 해결돼 東國中興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 그간 누누이 얘기돼 오던 「동국발전」이야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크나큰 과제였던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동국인 모두가 기슴에 손을 얹고 깊이 자심해볼 일. 아울든 民族東國의 명예 회복에 뜻을 같이한 오늘, 모두가 기적一样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영광스런 東國一紀世紀를 향해 달려봅시다. 「아픈만금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二人三脚의 정신으로.

“二人三脚”정신으로 동국발전을”



現代自動車(株)

HYUNDAI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Y2소나타” 판매개시 2.000cc

판매과장: 柳在善

TEL 274-3103~7

아간 914-6584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동판·활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84경원)

본사: 서울 동대문구 응우동 255-58
☎ 924-6662, 924-6363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종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86경원)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 理事
• 城東區 公認仲介士會會長

전화: (사) 234-4777, 253-9321 (자) 233-5799

서울 성동구 응우동 243-35(극동아파트 정문앞)

西独 보수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 출력증가/수명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錦·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

世進家具工芸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64경원)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70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전6권 원가!!
총 170일 만에 250,000부 돌파!



66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6권 완刊!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걸작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새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우로, 둑기호태의 진지함, 대부의 균성으로 빼았긴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金斗漢으로 휩박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南北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억한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 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품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술한 사람 들, 이땅을 강탈한 일본 야무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뱅이. 침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퍼문!

*전6권 / 국판·각권 300면내외/ 각권 값 3,3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NORTHWEST

**미국여행—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 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